

담양 대나무축제 밤까지 즐겨요

11~15일 죽녹원 일원서 열려
야간 개방·입장료 환급 첫 시행
공연·체험 다채로운 프로그램



지난해 '담양 대나무축제'가 열린 담양천에서 방문객들이 배 타기 체험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오는 11일 개막하는 담양 대나무축제가 죽녹원 야간 개방과 입장료 환급 등을 처음 도입하며 '홍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기에 나선다.

담양군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다섯간 죽녹원 일원에서 '23회 담양 대나무축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대나무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축제장에는 해마다 50만명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위상을 다졌다.

문광부는 10년 이상 진행된 전국 우수 축제 중 20개를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엄선하고 있다.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대나무축제는 '축제 평가·빅데이터 분석' '국내·외 홍보' '축제 판촉·전문 인력 양성' 등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선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축제 주제는 '대숲처럼, 초록처럼'이다. 죽녹원 야외무대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객 주도형 축제'로 꾸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죽녹원을 밤 9시까지 연다.

이곳에는 움직이는 조명과 소망등과 알전구, 반딧불 전구, 대형 달 모형 등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죽녹원 입장권 3000원은 담양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100% 환급한다.

담양군은 축제 주 무대를 추성경기장에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으로 옮겨 방문객들이 먹거리를 즐기며 쉬 수 있도록 했다.

주 무대에서는 담양 한우를 포함한 30여 개의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청년창업 전시·체험과 담양 전통주 등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축제장을 채운다.

축제 첫날 오전 11시에는 '리퍼커션' 공연과 대형 행렬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풍물패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6시에는 설운도, 김중국, 소찬휘 등 다양한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드론(무인 항공기) 군무'가 마련된다.

12일에는 '담양 고향사랑 트롯 가요제'가 펼쳐지고 이어 오후 6시부터는 김경호 밴드와 전자음악(EDM) 무대가 축제 밤의 분위기를 돋운다.

13일에는 '성악 트리오'의 무대와 화려한 불쇼가 진행되고, 14일에는 죽녹원에서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 100세 잔치'와 '솔로 탈출' 행사가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전국 청소년 기 페스티벌'과 아이돌 '크랙시'와 유명인 '이짜나연자나'의 폐막 공연으로 마무리한다.

올해는 대나무 축제와 광양 매화 축제, 신안 새우란 축제, 함평 국화 축제 등 4개 시·군이 함께 '사군자 축제'를 내걸고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죽녹원을 야간 개방해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흥겨운 공연과 체험으로 담양에서 밤까지 즐기는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군 내년 전남체전 준비 상황 보고회

내년 전남도체육대회(전남체전)를 여는 장성군이 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광영호 부군수가 주재한 '64회 전남체전-33회 전남장애인체전' 전담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부서 실과장이 참석해 올해 영광에서 열린 전남체전 참가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체전 개최를 위한 부서별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숙박, 음식, 교통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

상황을 진단했다. 장성군은 1년여의 준비 기간 주기적으로 보고회를 열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장성지역에서 처음 여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다짐도 했다. 장성군은 최근 영광에서 열린 63회 전남체전-32회 장애인체전 폐회식에서 대회를 인수하고 차기 개최지 홍보단을 운영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나인 '맞춤형 치매 예방'에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14개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중 신청

화순군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개에 대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사업과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해 이용권(비우체)을 받아 활용한다.

화순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모두 14가지이다.

노인 대상 아쿠아 운동서비스, 맞춤형 운동 처방서비스 등 6종,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5종과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올해는 장애인보조기 임대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체 1~2급, 뇌병변 1~3급 장애인 또는 자세 유지가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현재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630여명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6개 기관이 주 2회~3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내면 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별 가격의 80~90%를 정부가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군 '횡단보도 녹색등 자동연장' 시범 도입

동초교 후문 등 3곳에 설치

강진군이 횡단보도 이용자를 인식해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교통체계를 도입한다.

강진군은 동초교 후문, 강진읍사무소 교차로, 산림조합사거리 3곳에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교통 체계는 건물쪽에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연장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 시간 안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식해 허용된 시간(5~10초)

범위 안에서 보행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횡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뒤 효과가 좋으면 점차 보행자가 많은 건물목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재이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필리핀 국적 공공형 계절노동자 50명 추가 배치

농협서 고용 하루 단위 농가 파견

나주에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50명이 추가로 농가에 배치됐다.

나주시는 지난달 29일 필리핀 팔라주 라파즈시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이 입국한 뒤 이달 3일부터 배 농가 등에 배치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인 이들은 농협이 직접 고용한다. 농협은 하루 단위로 이들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경영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단기간 인력이 있어야 하는 소농·고령농·여성농 등이 부담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7개월간 일한다.

나주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환영식을 열고, 인권 보호, 무단이탈방지·범죄 예방, 농작업 영상교육, 현장실습 등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는 몽골 국적 근로자 95명이



나주 농가에서 일할 필리핀 국적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지난달 말 입국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기형 계절근로자로 나주를 찾았다. 앞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에 따른 계절근로자 384명이 차례대로 입국해 올 상반기 총 53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주 농촌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몽골에 이어 필리핀 근로자

들이 나주의 선진농업 기술과 영농경험을 얻고 농촌에서는 일손 걱정을 해소하는 상생 협력 관계가 이뤄질길 기대한다"며 "근로자가 목표를 이루고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